

가을빛 참 아름다워 눈동자에 풍경을 담습니다



백암산 백양사

백양사의 애초 이름은 백암사였습니다. 절 뒤의 거대한 암석이 흰색을 띤 데서(白巖) 따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겨레는 산악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큰 바위는 그래서 하늘에 제를 올리는 제단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흰빛은 순수와 신성함을 상징하는 색이니 흰색을 띤 거대한 백암 주위는 당연히 성역이 됩니다. 백양사는 1400여 년 전인 632년(백제 무왕33)에 백제의 여환 스님이 창건하였습니다. 이어 고려 덕종 3년(1034)에 증연 스님이 중창하였는데, 이때는 정토사라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백양사로 불리게 된 것은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입니다. 환양 선사가 중건하면서 그랬는데, 그 연유가 재미있는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환양 스님이 매일 아침 법당에서 법화경을 독경하고 있노라니, 백학봉 밑에 사는 흰 양들이 풀려와서 독경을 듣다가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난 후 스님의 꿈에 양이 나타나 독경소리에 깨달음을 얻어 사람으로 환생하게 되었다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스님의 높은 법력으로 축생을 제도하였다고 하여 절 이름을 백양사(白羊寺)로 고쳐 부르게 되었고, 스님의 법명 역시 환양(喚羊)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백암산에 살고 있던 산양을 제도한 연유로 해서 백양사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오히려 백암사라는 사명이 이 사찰의 특징을 짐작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험하고 맑은 기운이 서린 곳은 예로부터 수행처로 여겨져왔습니다. 백양사가 그러하니 고승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사적에 전하는 대표적인 스님으로는 사명대사의 제자인 해감국사와 소요대사입니다. 부도전에는 백양사에 주석했던 여러 고승들의 자취가 푸른 이끼에 그대로 서려 있습니다.

백양사 사천왕문에 '고불총림백양사' (古佛叢林)라고 쓰인 현판이 순례자를 맞이합니다. 고불은 연등불 등 과거세의 부처님을 이르는 말인데, 그 의미를 덧붙이자면 인간의 본래면목 즉, '근원적인 그 자리'를 밝힌다는 뜻입니다. 총림이란 다수의 승려대중이 모여 수행하는 도량인데, 우리나라 5대 총림은 통도사 영축총림, 해인사 해인총림, 송광사 조계총림, 수덕사 덕숭총림, 백양사 고불총림입니다.

쌍계루-백암산의 백미
백양사에 이르러 붉게 물든 단풍나무에 둘러싸인 쌍계루의 단아한 자태에 오래도록 눈길을 붙잡습니다. 단풍나무술과 수백 년 묵은 아물드러 갈참나무들이 반기는 단풍숲길을 오르다보면 만나는 누각입니다. 고려 말 대학자 목은 이색이 이곳에 들러 "두 냇물이 합치는 곳에 들어선 누각이 물에 비쳐 그림 같다"는 시구를 남겼습니다. 진홍색 가을 풍경과 흰 이마를 드러낸 백학봉이 쌍계루 앞 연못에 반사되는 풍경은 백암산의 백미(白眉)입니다. 오래도록 바라봅니다. 눈에 담아가서 가까운 이들에게 펼쳐 보여 주고 싶습니다.

예부터 백양사 입구의 쌍계루는 백양사의 단풍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명소로 알려져 왔는데, 전국에서 절경의 단풍을 구경할 수 있는 빼어난 장소의 하나로 꼽힙니다. 양쪽의 계곡물이 합류한 지점에 누각을 올리니 쌍계루입니다. 물이 합쳐지는 곳에 보를

쌓아 연못을 조성해 놓으니 쌍계루와 함께 주변의 단풍이 물에 어립니다. 지나가던 구름도 머물다 갑니다. 바람에 잔물결이 일렁일 즈음에야 구름도 제 갈 길로 갑니다. 쌍계루를 옆에 끼고 세월교를 넘으면 백양사 아늑한 품입니다.

특이한 대웅전 뒤 탑 배치



오른쪽으로 백암에서 넘어오는 기운을 받고 큰 위엄을 보이며 대웅전이 서 있습니다. 1917년 송만암 대종사가 백양사를 5중창하였습니다. 불교의 교주 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상을 주불로 모신 대웅전을 세웠습니다. 건물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지만, 전통 사찰건축 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대웅전 뒤를 바라보면 우뚝 솟아있는 백암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크면 위압적일 수 있는데, 백암은 든든한 배경입니다. 대웅전이 백양사의 주 신앙공간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대웅전 안에는 본존인 석가모니불이 중앙에, 협시인 문수보살·보현보살을 좌우에 배치했습니다. 불단에는 최근에 조성한 금동불을 봉안하였다. 내부에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팔상도가 있으며, 팔상도 아래에 쌍봉사에서 모셔온 나한상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여느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대웅전 내의 독특한 구성입니다.

대웅전 뒤편에는 네 마리 사자가 받들고 있는 불탑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찰들이 전각 앞에 탑을 세우고 있음에 반해 백양사는 적벽보궁처럼 전각 뒤편에 탑을 조성해놓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백양사의 탑과 전각의 배치 방법은 대웅전 앞 마당에 탑을 조성하는 방식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약간의 혼란을 주지만 이는 고정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선수행의 가르침을 맛보게 해주는 것 같다고 생각해도 좋을 듯합니다.

극락전-쌍계루와 짝 이뤄 극락국토 상징



백양사에 들어왔을 때 정면으로 제일 먼저 보이는 전각이 극락전입니다. 정면 3칸, 측면 3칸 맞배지붕이며 화려한 다포계 건축물입니다. 상양봉 아래쪽에 대웅전을 새로이 조성하면서 주 신앙공간에서 살짝 벗어나게 배치했습니다. 창건 당시 백암사였다가 정토사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전

“ 물이 합쳐지는 곳에 보를 쌓아 연못을 조성해 놓으니 쌍계루와 함께 주변의 단풍이 물에 어립니다 지나가던 구름도 머물다 갑니다 ”

을 조성해 놓았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세월교를 넘어 사찰로 들어설 때 만나는 우후루와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으므로 과거의 사찰 배치에서 주 신앙공간이었을 것입니다. 만암 스님의 중창으로 대웅전을 조성하기 전까지는 그랬을 것입니다. 아미타불 1존불만 봉안하였으며 아미타회상도를 후불탱화로 모셔놓았습니다.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은 구품의 연못이 있다고 했으니 쌍계루를 정면으로 보는 극락전이 있음으로 해서 이전에 백양사가 극락국토를 상징하는 사찰구조를 조성했을 것입니다.

장성 일대 칠성신앙 반영

진영각과 칠성각은 한 건물을 나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칠성은 약사여래 신앙에서 많이 보입니다. 많은 사찰에서 삼성각을 조성해서 산신·나반·칠성을 모시는 사례와 비교해 보면, 따로 칠성만 진영각 옆에 모셔놓은 의미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삼성각은 원래 민간의 전래신앙을 불교에서 수용해서 사찰에 조성하는 것으로 사찰의 외곽에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백양사 칠성각은 사찰의 주 공간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양사가 있는 전남 장성 일대에서는 유독 칠성신앙이 뿌리깊게 신앙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타 사찰이 칠성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탱화로 신앙대상을 봉안하는데 대해 백양사의 칠성각은 칠성을 부조입상으로 조성하여 봉안해 놓은 것도 다른 사찰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칠성은 수명을 관리하는 신으로 단명이나 출사를 막아주고 장수를 염원하는 대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중들에게는 일상 삶속에서 다양한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는 영험이 있는 존재로도 신봉되어 왔습니다. 여느 사찰에서 찾아보기 힘든 칠성신앙의 영험지로 보여지니 백양사를 순례하는 일이 있다면 잊지 말고 칠성각에 한번 둘러 참배하기를 권합니다.



글·사진 한지유
한국생활문화연구소 소장
파라미터청소년협회 문화재 강사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종 정 청봉 석정산 대종사

(종정사서: 석법보, 석능현, 석도현, 박선희화)

기획팀장: 김나희(덕연화)

- | | | | |
|---------------|-----------------------|-----------------------|------------|
| 원로회 회장 홍섭 대종사 | 원로회부회장 연각 대종사, 만월 대종사 | | |
| 승정원장 원정 대종사 | 호법원장 승산 대종사 | 감찰원장 법일 대종사 | |
| 감사원장 지명 대종사 | 사정원장 법안 대종사 | | |
| 중앙연수원장 동원 대종사 | 중앙교육원장 무겸 대종사 | 중앙교육부원장 석월오, 석운오, 석성현 | |
| 호법부장 석법천 | 호법국장 보명 | 감찰국장 법진 | 감사부장 해주 |
| 경남1종무원장 보명 | 경남2종무원장 범일 | 부산1종무원장 정은 | 김해1종무원장 청해 |
| 거제종무원장 덕운 | 경주종무원장 보정 | 대구1종무원장 해운 | |
| 총무원장 대행 석혜오 | 포교부장 석해통 | 재무부장 석능각 | |
| 교무부장 석성오 | 의전부장 석근홍 | 행사부장 석명오 | |
| 문화부장 석도산 | | | |

비구니원: 석자인, 석정은, 석효각, 석해안, 석범오, 석수진, 석수해, 석능현, 석도현, 석지현

*차후에 직책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입증 안내 ※ 창종예정일: 불기 2554년 12월 12일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1) 입증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 총본산: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055)364-4849

2) 입증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 범음법패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 계좌번호: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사) 대원불교 조계종

※ 유사 대원불교조계종이 "진주"에 있사오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정 청봉 석정산